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33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4월 9일 (음력 3월 14일) 목요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를 책임질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스테판 버그 단장을 비롯한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 실사단이 8일 '2015하계 U대회' 후보도시인 광주시에 대한 실사를 마친 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FISU 실사단 "광주 준비 완벽하다"

2015 U대회 광주에서 실사 마무리…"최적 여건 갖췄다"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의 중요 관문이었던 광주 현지 실사가 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2면·화보 3면〉

광주시는 이번 실사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 U대회 개최 도시에 걸맞는 스포츠 인프라, 시민 유치 열기 등을 실사단에게 효과적으로 각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흘간의 실사를 마친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 실사단이 지적했던 경기장 편의시설, 교통 편의 제공 등 제반 인프라가 수준높게 보완됐다"고 종합 평가했다.

스테판 버그 단장은 "광주시가 경기장을 신축 하기보다는 기존 경기장의 활용계획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며, 이밖에도 지난해 지적된 내용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의 강점으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 ▲지적 사항에 대한 빠르고 꼼꼼한 대처 ▲선수촌 컨셉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 ▲선수단 식당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 ▲사후 관리 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실사단은 이날까지 광주시가 대회 유치 신청서에서 제시한 광주·전남 42개 경기장 가운데 29개 경기장을 집중 점검,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해 대회 유치전망을 밝게했다.

이들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 호남대 체육관, 영광 스포티움 등 주요 경기장을 둘러본 뒤 '원더풀(Wonderful)', '베리 굿(Very good)', '뷰티풀(Beautiful)' 등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테판 버그 단장은 "일부 경기장 내 탈의실이나 도핑 테스트실 등이 갖춰지지 않는 등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했으며, 광주가 국제적인 체육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고 지적했다.

.U대회 준비상황과 비전을 설명한 광주시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대회가 치러질 경우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사단은 9일 오전 환송 조찬을 끝으로 3박4일간의 모든 실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한다. 실사단은 실사 결과를 FISU집행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5월23일 최종 개최지 결정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총회에서 3개 유치 후보 도시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윤영기·윤현석기자 penfoot@

실사단 5人의 소감

스테판 버그 (단장·스웨덴)

광주 유치 실현되면
역대 최고의 대회될 것

말룸베트 라레트 (남아공)

월드컵 개최해도 될 만큼
훌륭한 축구 경기장 갖춰

루시아노 카브랄 (브라질)

U대회 유치 후보 도시
광주 매우 유력하다

히사토 이가라시 (일본)

광주·전남 경기장 시설
U대회 치르기 손색없다

케말 타머 (터키)

경기장 경관 아름답고
시설도 매우 훌륭하다

대검, 盧 부부 다음주 후반 소환

권양숙씨가 박연차씨에 받은 10억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밝힘에 따라 이르면 내주 후반 노 전 대통령 부부를 불러 진위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4·5면〉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고 알려진 10억원에 대해서는 이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 조사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을 참고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겠다"며 "권 여사의 등장은 사과문을 통해 처음 알았고 돈을 받았다는 일시·장소·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아 검찰이 알고 있는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차용증을 쓰고 박 회장한테 빌렸다는 15억원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작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500만 달러 이외에 금품이 건네진 단서를 검찰이 포착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빌렸다는 15억원과 관련해서는 "퇴임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인 간 거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용증에는 2008년 3월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빌려 1년 뒤인 올해 3월19일 갚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

나주혁신도시 입주 첫 손님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매입 착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착수했다.

유통공사측은 나주혁신도시의 토지공급사인 한국토지공사 측과 이전부지(1만8천757㎡)에 대한 매입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국토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옥 신축을 위한 설계 등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공사의 부지 매입 개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17개 이전대상 기관을 비롯,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 중 처음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전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이전 지연으로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통공사의 부지 매입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또 빠르면 다음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1만9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9천193㎡)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을 비롯, 2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박람회 부지 조성 8월 착공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 착공식이 오는 8월께 열리는 등 부지조성과 전시관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달 말께 전시관 국제 현상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건설 및 설계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 박람회 추진상황과 전시관 사업규모 및 발주방식을 소개한 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명품 전시관 건립을 위해 설명회에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하는 등 이달 말부터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위 측은 공모를 통해 올 10월이면 당선작을 선정,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사기간 단축과 신기술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턴키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7월 입찰공고를 통해 연말께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박람회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짐에 따라 박람회 개최 D-1000일인 오는 8월16일 이전에 박람회 부지 착공식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